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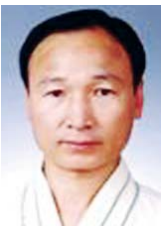
People & Life

배우 조인성 "전역 신고합니다"



인기 연예인 조인성(29)씨가 25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4일 전역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공군작전사령부 후문 앞에 예비군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군에 입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군복무 소감을 피력했다.

방짜유기 이종덕 장인 전북 무형문화재



김재 금산면 방짜유기 장인 이종덕씨가 최근 전북 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됐다. 이씨는 방짜유기 무형문화재 이봉주씨로부터 제작법을 전수 받고 현재 금재 금산면 공방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신문방송편집인협 사무총장 김석기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는 4일 김석기(54)씨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김 사무총장은 서울대 정치학과와 서강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에서 디지털뉴스팀장, 내셔널부장, 행정국장, 시민사회환경연구소 부소장 등을 지냈다.

원불교 역사 산증인

박장식 종사 열반



원불교 역사의 산증인인 산산(山山) 박장식 종사가 4일 오전 3시36분 노환으로 열반했다. 향년 101세. 1911년 1월 남원에 서 태어난 고인은 경성 법전(서울대 법대의 전신)을 졸업하고, 1941년 원불교에 출가해 원불교 초기교단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호소 아닌 국제적 통용 논리 제시해야"

"독도는 한국땅" 알리미 호사카 유지 교수



지난 3일 광주시 광산구 보건교에서 열린 '독도는 우리땅' 강연에 앞서 만난 호사카 유지 세종대 인문과학대 교양학부 교수는 "일본이 '대일본전도'(1877년) '신찬조선국전도'(1894년) 등 1900년 이전 일본 고지도와 문서 대부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다" 사실이 독도가 명백한 한국땅이라는 논리적 근거"고 입을 열었다.

일본의 독도 예곡은 1905년 1월28일 정부문서에서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하고 시마네현에 강제 편입하면서부터 시작됐고 그 당시 한국은 일본 침략과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목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최근 이 이슈가 되고 있는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는 "러스크 서한은 당시 극동위원회에서 검토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았던 내용이 뿐더러 고 문서는 비밀리에 한국 정부에만 송부됐고, 다른 나라에도 공표된 바가 없다"며 "러스크 서한은 무효"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들 대부분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국민적 정서로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체화시켜 독도 영유에 관한 공식 견해에서 누락된 내용들을 체계화해 하루빨리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 대응해야 합니다."

강광파·김은숙·슈나이스 목사부부 '오월어머니상' 수상

제5회 오월어머니상 수상자로 강광파(68)씨와 김은숙(52)씨, 바울 슈나이스 목사부부가 각각 선정됐다. (사)오월어머니회(회장 안성례)는 4일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인 시민모임을 이끌어오면서 오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킨 강광파씨, 정의를 위해 투쟁한 김은숙씨의 공로를 인정해 각각 수상자로 정했다"고 밝혔다.



강광파씨 김은숙씨 바울 슈나이스 목사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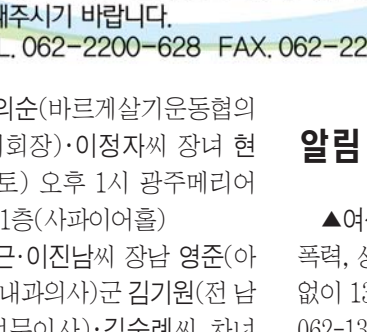
강광파씨는 전남대 대학시절 '한·일 문제연구회'를 조직해 각종 시위가 참가했고, 1980년 5월 항쟁 이후에는 항쟁의 배후로 수배를 받았던 전남대 교수(명노근, 송기숙, 이홍길, 김동원)들을 서울 서교동 자택에 은의, 피신시키는 등 1960년 이후 모범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해왔다.

김은숙씨는 문부식·김현장씨 등 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휴 진압에 대해 미국이 침략하는데 반발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일으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년8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김씨는 사회운동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은 채 소설과 번역역서를 펴내며 조용히 지내왔고 작년 가을까지 여러 해 동안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자녀를 돌보는 '참신나는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다.

독일 동아시아 선교단체 선교사인 바울 슈나이스(Paul Schneiss, Kiyoko Schneiss) 목사부와 인 기우씨는 5·18 민주항쟁을 세계 주요 언론의 특파원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광주의 참혹한 실상을 세계에 알렸다. 또 이 부부가 세계에 알렸던 민주화운동의 각종 자료들과 5·18관련 자료들은 현재 과천 역사박물관에 기증하여 한국의 소중한 역사로 보관돼 있다.

시상식은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동명동 오월어머니집에서 열리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윤현식기자 chadold@kwangju.co.kr

"영화 한편이지만 행복한 선물 됐으면..."



영화는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행복해질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정기적으로 청각·언어장애 학생들을 초청해 무료 영화 관람행사를 열고 있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무등시네마 오권수(72) 회장. 오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인화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무료 영화 관람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의 날을 물론 학교 기념일과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학생들을 초청하고 있다.

접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영화 보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던 오 회장이 그들을 영화의 세계로 초대해 준 것이다. 오 회장은 "저도 어린 시절 2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숨죽여 가며 영화를 보고 행복해 했는데, 장애 학생들이 한 번도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거만히 있지 않았다. 오 회장은 지난해 큰 교통사고로 몇 개월간 입원치료를 중일 때, 이들 학생들이 찾아와 배를 받아주고는 했다. 오 회장은 "학생들이 대견하고 고맙다"며 "난 그저 영화 한편 한편이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동반자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무등시네마 오권수 회장, 청각·언어장애 학생 초청 관람

청각·언어장애의 특성상 영화를

전기공사협 전남도회 봉사활동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회장 유재선)는 최근 광양시 다입면 항동마을과 고사마을 2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시설 점검 등 무료 봉사활동을 펼친 뒤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했다.

전남축구협, 고흥 봉래중 초청 현장학습



고흥 봉래중(교장 정병원) 학생과 교사 53명이 전남축구협회(회장 장 서정복)의 초청으로 4일 광양제철소와 전남 드래곤즈의 리그컵 경기기 열린 광양전용구장을 찾아 스포츠 현장 학습을 가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장성 진원동초 한마음 축제



장성 진원동초등학교 총 동문화(회장 권춘화)는 지난 1일 모교 운동장에서 제2회 한마음 축제 행사를 가졌다. (진원동초등학교 제공)

전남농협 '5월 새농민상'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3일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달의 새농민상' 5월 수상자로 김명환·조명화(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류범현·김정임(고흥읍 고소리)씨 부부를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여수 원농장을 운영하는 김명환(44)씨 부부는 무항생제 친환경 한우 90두를 사용해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우사육업체인 회원 김씨는 가족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 우수 한우 유통관리 체계를 통한 고급육 생산에 적극 나서 회원들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고흥 정농장을 경영하는 류범현(58)씨 부부는 한우와 유자, 수도작 등 복합영농으로 연간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고흥농협 유자작목조합인 류씨는 고흥 유자의 명품화에 기여했고, 고흥만 간척미 친환경 작목반을 조직해 과학영농을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故 강정원 님(남/67세)
子/子婦: 강순성/김미연, 손태/김미연, 손태/김미연
女/婦: 강영진/최현태
향년 66세
장지: 영광공원
연락처: 227-4314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